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3호 【루계 제25396호】 주체105(2016)년 9월 9일 (금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고 강대한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끝없이 위용떨칠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빛나는 승리와 번영의 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세계정치의 중심에 우뚝 솟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 자주의 핵강국,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기적인 비약과 변혁으로 인민의 리상을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나라가 우리 조국이다.

끝음으로 약동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권위가 최상의 경지에서 빛을 뿌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의 영웅적대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은 인류건국사상 처음으로 되는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자주독립국가의 탄생이였고 위대한 강국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강위력한 정치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값높은 삶과 권리,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영예도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의 9.9절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불타는 애국의지를 북돋아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 무한한 애국헌신의 결정체이다.

백두의 밀림속에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건국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전체 조선민족의 총의에 따라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가 건설되게 되였으며 그때로부터 이 땅에서는 인민의 무진 힘 노도도 내밀며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장엄한 시대가 열려지게 되였다. 주체의 기치높이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영웅조선으로,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억세 나래를 펼친 천리마조선으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간고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뿌리를 마련하시고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기틀을 다져놓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공적중의 공적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강대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희세의 정치원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일찌기 수령중심의 조국관을 천명하시고 김일성주의의 기치높이 공화국을 수령님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우리 공화국을 반세투쟁의 강경보루,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로 전변시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다.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사회주의헌법이 김일성헌법으로 빛을 뿌리고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가 확립된것은 공화국의 면모와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할수 있게 한 특기할 사변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가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 나라의 정치군사력이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려지고 공화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높아진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공화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여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기의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또 한분의 백두산혈통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 새로운 병진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사상과 로선, 정책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의 기치로 빛나고있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력과 자위적국방공업을 최강의것으로 다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는 전대미문의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중시, 후대사랑의 숭고한 정륜을 펼치시고 백두의 공격기상으로 온 나라에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더욱 번모되게 되였으며 이 땅우에는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안고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국가, 전도양양한 백두산청년강국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며 백전백승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없는 자랑이고 영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처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확고히 계승하고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이다.

사회주의국가의 불패성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는데 있다.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을 높이 받들어모시는 나라만이 권위있는 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다는것은 우리 혁명실천이 세계주는 철리이다.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근 70년세월이 흘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시고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다 바쳐 강화발전시키신 우리 공화국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에도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을 줄기차게 이어나가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이시며 백두산대국의 불변의 진로도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정치방식, 국가건설업적을 만년토대로 하여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는것이 오늘의 우리 공화국이다.

수령의 유훈관철에 수령의 사상과 위업의 참다운 계승이 있고 빛나는 실현이 있다. 오늘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수령의 유훈을 부강조국건설의 유일한 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업적을 빛내이며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부흥의 씨앗들을 풍만한 결실로 꽃피워나가는 전인민적인 총정의 대진군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에는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세세년년 흐르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의 성격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억척불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로 끝없이 빛을 뿌릴것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자력자강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자강력은 국가발전의 기초이고 생명이며 그에 의거하여 전반적국력을 강화해나갈 때 사회주의강국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다.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는 우리 공화국이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국가건설의 기본원칙이다.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그 무엇에 얽매이거나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힘, 자기 식으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우리 공화국은 오늘 그 어떤 대국도 카질수 없는 강의 위대한 서사시를 펼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정히 받들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 인덕정치에 의하여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과 군인들, 청소년학생들이 시대의 영웅, 온 나라의 자랑으로 떠받들리우고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 미래를 전적으로 맡아 보살피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며 생활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본태를 적극 살리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있다. 온 사회에 사상중시, 5대교양의 열풍과 과학기술중시,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 주체성과 민족성이 싹 차넘치고 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꿈같은 사회주의적시책들이 온 나라 가정들에 흘러들어 우리 인민은 사상과 신념의 강자, 창조의 거인, 고상한 미풍의 소유자들로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서는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들이 수없이 일어나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들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우리가 만든 비행기들과 지하전동차가 하늘을 날고 땅속을 달리며 사회주의조선의 문명을 상징하는 현대적인 거리들과 살림집들,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아이들과 인민들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다.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제부들이 안겨지고 이 땅 그 어디에나 문명의 벌천지가 펼쳐지고있는것은 인민을 최대로 중시하는 우리 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숭고한 화폭이다.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은덕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사회주의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하루빨리 세계가 우러르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위력은 정치사상적위력이며 정치사상진지를 튼튼히 다지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쳐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국가정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우리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5대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우리의 정치사상진지를 허물고 일심단결을 파괴하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사상전의 도수를 높여 온갖 이색적인 사상과 생활풍조의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

군력은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다.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 여기에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길이 있다.

인민군대는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불패의 당군,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백두산혼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군을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연요새로, 모든 군인들을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전투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갖춘 전싸배기싸움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부대들을 항일의 7련대, 전화의 근위부대들로 만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력군, 돌격대의 위력을 계속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의 병진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국방공업발전을 앞세워 자위적군사력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며 우리 식의 현대적이고 강위력한 주체무기들을 더 많이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확고히 세우며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하고 원민, 원군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을 최단기간내에 점령해나가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과 기계, 화학공업, 건설부문과 전재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의 힘,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증산투쟁, 창조투쟁, 련속공격전을 맹렬히 벌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 올해에 승리의 롱장훈을 부르고 수산부문에서 비약을 일으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여나가며 경공업부문에서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생산을 활성화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한다. 대비약속도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한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단숨에 일떠세운 그 기세, 그 기백으로 당의 구상과 결심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에서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하는 눈부신 성과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온 나라가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경쟁열풍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공화국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며 인민의 참된 복무자이다.

정권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가며 인민정권을 영원히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관을 철저히 구현하고 인민을 위하여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빛내이려는것은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각 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친선적인 성격을 띠고있습니다.

나는 호혜적인 쌍무협조를 여러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전반의 안전과 안정강화에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에게 행복과 복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웨 . 뿌 찐

2016년 9월 9일 모스크바, 크레믈리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8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리용호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동 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신께 형제적인사를 드립니다.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꾸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뜨로 루쓰

2016년 9월 9일 아바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8일 외교단 단장인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싼 팔레스티나국가 특명전권대사가 리용호외무상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경축

## 중 앙 보 고 대 회 진 행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받들고 온 나라가 총정의 200일전투를 과감히 벌리며 만리마속도창조로 들끓고있는 격동의 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경축하고있다.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장장 수십성상의 행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자주와 선군으로 존엄높고 자력자강으로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적귀감을 창조하고 그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전진하여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뜻깊은 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온 나라 천만군민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조국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8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인민문화궁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드시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과 국기가 형상되여있었으며 《경축 68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내 나라를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의 나라로 더욱 빛내여나가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로력혁신자들, 혁명렬사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이 초대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명수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구대석 재일본조선인교육회 회장,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무궁번영할것이다》를 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원불멸할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였으며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된 위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간직하였다.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총직하게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무궁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락원으로 길이 빛내여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가 끓어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조국찬가》주악으로 끝났다.

---

### 주체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대로를 따라 총정의 200일전투에 산악같이 떨쳐나서 기적창조의 불길을 거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뜻깊은 올해의 공화국창건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국땅에 새로운 비약과 번영의 만리마시대를 펼쳐주시고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의 발사성공에 이어 전략잠수함 《북극성》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중의 성공, 승리중의 승리로 이끄시여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서운 철퇴를 내리시는 친솔령장의 위인상을 커다란 감격과 흥분속에 우러르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주체위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영예로 한없이 설레이고있습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경사스러운 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일화같은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찬란한 로정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비범한 사상리론과 천재적예지, 거창한 혁명실천과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륭성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백승만을 이룩하시여 우리 조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긍지높은 력사입니다.

온 겨레와 더불어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높이 칭송하면서 한결같이 우러르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세워주시고 불패의 강국으로 이끌어주신 사회주의조국이 있기에 재일동포들은 조국멀리 이국의 찬바람속에서도 민족의 존엄을 꿋꿋이 지키고 참된 삶을 누리며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시기 원한어린 이역땅에 끌려와 망국노의 피눈물을 흘렸던 재일동포들을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해외공민으로 키워주시고 독창적인 로선전환방침으로 총련을 무어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주시였으며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나어린 학생들까지 사랑의 한품에 따뜻이 안아주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일군들을 한결 호속의 동지로, 재일동포들을 한식솔로 뜨겁게 불러주시고 총련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해주고싶다고 하시면서 온갖 친어버이은정을 베풀어주시였으며 강령적교시를 거듭 주시여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새 전성기를 열기 위한 총련의 운동을 승리에로 령도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은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수호전과 강국건설을 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총련결성 60돐을 비롯하여 여러 계기들에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대강인 강령적시한과 축하문, 축전들을 보내주시여 새로운 주체100년대 총련사업을 걸음걸음 이끌어주고계십니다.

자신께서는 총련과 언제나 함께 있다고, 재일동포들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총련일군들과 조청일군들을 불러주시여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들이 올리는 소박한 인사도 정깊게 받아주시였을뿐아니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대표단과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총을 우리들은 대를 이어 영원히 전해갈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이 한없이 부풀어오르는 9.9절의 이 아침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과 반미대결전, 조국통일위업과 더불어 총련애국위업도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과 슴결과 보폭을 맞추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시한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갈 불같은 결의로 끓어번지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위업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요구에 맞게 조직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대오의 일심단결과 혼연일체의 힘으로 총련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으신 권위를 절사옹위하며 원수님의 말씀을 어김없이 관철하는 강위력한 주체적해외교포조직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 일군들과 동포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조국의 불패성을 심장깊이 새기며 어머니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투쟁되게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부경쟁과 새 전성기 애족애국모범창조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상의도대로 지부와 분회를 비롯한 총련의 기층조직들을 애족애국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의 전 조직과 모든 동포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워 민족교육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청년중시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새 세대 일군들과 동포청년들을 총련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들로 키우는 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동포재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늘 동포들속에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동포들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온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여는데서 애국적본분을 다하며 일본인민들과의 대외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겠습니다.

주체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시기에 가지는 총련분회대표자대회를 지향하여 100일집중전을 힘있게 벌려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치는 일대 진군의 해로 장식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충정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주체조선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체105(2016)년 9월 9일 일본 도꾜

---

###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각하

오늘 우리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귀국의 수도 평양에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각하께 이 편지를 삼가 드립니다.

이번 국제토론회는 존경하는 각하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전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주체의 조국에서 열린것으로 하여 더욱 큰 의의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승리자의 대회, 력사적인 대회라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각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침로를 따라 곧바로 나아갈것이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천명하시였습니다.

우리들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각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총직성을 페부로 느낄수 있었으며 조선의 드팀없는 자세와 신념을 다시한번 뚜렷이 보았습니다.

조선의 현실은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전세계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줍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의 가슴속에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은각하에 대한 끝없는 존경심과 신뢰심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습니다.

비범한 정치실력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세계자주화위업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인 령도에 고무된 전세계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성과를 축하하여 경축모임과 토론회들을 가지였습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지난 5월에는 도꾜에서 일본전국의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을 비롯한 저명한 인사들의 참가하에 기념보고회와 축하공연이, 7월에는 메히꼬에서 라틴아메리카지역의 김일성-김정일주의신봉자들의 강연회와 토론회가 의의있게 개최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평양에 모여 주체사상국제토론회를 성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각하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신 세계자주화위업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보급함으로써 매개 나라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단결된 자주력량의 힘으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자주의 새 세계를 앞당겨오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적대세력들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전쟁과 폭력으로 방해하고있지만 그들의 어리석은 책동은 분쇄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조선에서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선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김정은각하께서 건강하실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일동**

2016년 9월 8일 평양

#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무궁번영할것이다

##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는 온 나라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태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예순여덟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9월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며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령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부강조국건설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사회주의위업 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뜻깊은 공화국창건일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공화국의 강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울러 조국의 자주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항일혁명선렬들과 인민군렬사들, 애국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사회주의조국의 불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지성을 다하고있는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며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자주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적귀감을 창조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전인미답의 시련의 길에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으며 자주와 선군으로 존엄높고 자력자강으로 번영하는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존함과 결부되여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시고 해방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시여 주체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새형의 인민정권의 탄생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과 부강조국건설에서 근본적인 전환으로 되는 민족사적사변이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식민지약소국의 설움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떳떳이 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근 70년에 걸치는 장구한 나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를 헤치고 자주시대 강국건설에서 나서는 수많은 력사적과제를 가장 빛나게 수행하며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력사를 수놓아왔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조국땅우에 세계가 우러르는 강대한 나라,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실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건국의 초행길과 전화의 불구름, 전후복구건설의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창건된지 2년도 안되였지만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으며 가장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솟아오르게 되였습니다.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우리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칭송하는 영웅조선, 천리마조선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사적공적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릴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격변하는 시대적환경과 준엄한 정세,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시였습니다.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핵심,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정치군사적지반을 튼튼히 다져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세계적인 정치통관속에서도 끄떡없이 주체의 강국건설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령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을 승리에로 이끄신것입니다.

가장 숭고한 애국의 한마음을 지니시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번영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강성번영의 전성기를 예고하는 경이적인 사변들과 기적들이 다채단으로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불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장엄한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견지하여오신 자주의 신념과 의지로 위력떨치는 주체의 강국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우리 당의 자주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리론은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와 겹쌓인 난관속에서도 자주의 한길을 따라 드팀없이 전진하여올수 있게 한 백승의 기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한평생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투철한 혁명적립장을 지니시고 국가건설과 활동, 혁명과 평화를고 행복한 삶을 누려올수 있은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굳건히 다져주신 불패의 군력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엄혹한 현실은 우리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자립적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져주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강국에로 비약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펼쳐주시였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첨단과학기술성과들과 새 세기 산업시설의 본보기들, 사회주의땅탑게 번모된 대규모의 규격포전들과 자연호름식물길들,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선 수많은 창조물들마다에는 끊임없는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선군조선의 제부들을 하나하나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가 깃들어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최대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후대들에게 물려준 조국을 물려주시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의 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 열화와 같은 애국헌신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강성번영의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부강조국건설사상과 위업을 드팀없이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고 최후승리를 위한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를 펼치시며 우리 공화국을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와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십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당과 국가의 모든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최한한 현실로 하나하나 펼쳐지고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 못하는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수소탄까지 보유한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밑에 온 나라에 타번지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선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신화들과 경이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되고있습니다.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과시하며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그 면모가 달라지는것이 자력자강으로 흥하고 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의 격동적인 현실입니다.

참으로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수령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나라만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드팀없이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위력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을 자주시대 국가건설의 불변의 진리로 확증해주고있습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국건설념원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국력을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시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구상하시고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하루빨리 완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주체의 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우리들의 가장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실현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유훈대로 틀어나가며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식,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우리는 선군조선의 찬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며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추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항구적인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올려세우며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는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전반적경제를 활성화하여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문명강국건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건장한 체력, 고상한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전역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올해를 승리자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혁신의 기수가 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기상으로 전진하는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군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의 국방공업을 선군혁명의 병기창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권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우리 당의 강국건설로선과 정책을 결사관철하며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전개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적통일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조국통일3대헌장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할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공화국의 무궁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

## 여러 단위에 건립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현지지도표식비가 평남관개관리소 해소양수장, 청진염소목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 세워졌다.

해소양수장에 세워진 현지지도표식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려차례 이곳을 찾으시여 양수장을 훌륭히 건설할데 대하여서와 운전공들이 양수설비를 잘 정비관리하고 청원지구에 관개용수를 지장없이 보내주며 양수장과 그 주변을 문화적으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이 새겨져있다.

청진염소목장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97(2008)년 5월 몸소 목장에 오시여 지역적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의 염소를 많이 기르며 클관조성과 수의방역사업을 비롯한 목장관리운영을 잘하여 젖제품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을 담은 현지지도표식비가 건립되였다.

평양체육기자재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2016년 6월 공장을 찾으시여 체육기자재의 질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생산지표를 늘이고 설비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할데 대하여서와 경영전략을 잘 세워 당의 체육의 대중화방침관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장이 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안고 현지지도표식비를 세웠다.

평남관개관리소 해소양수장, 청진염소목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에 건립된 현지지도표식비들에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충정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다.

현지지도표식비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정 령

제1273호 주체105(2016)년 8월 26일

## 대동강가구공장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숭엄하게 꾸리는데 백옥같은 충정을 바치였으며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봉사부문과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가구제품, 건구류들을 훌륭히 생산보장함으로써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고 인민적시책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대동강가구공장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련대련합하여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가자

##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진행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최로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라는 구호들이 토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토론회에는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가마꾸라 다까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의 개회사에 이어 태형철위원장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그들은 공통된 지향과 념원을 안고 대양과 대륙을 넘어 주체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 참가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과학성과 정당성, 생활력으로 하여 세기를 이어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라고 하면서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지닌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토론회가 주체사상연구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깊이 연구제득하는 력사적인 회합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하리쉬 굽따 부리사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자주성에 대한 인류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오늘 반제자주와 련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열린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반제자주력량과 제국주의반동세력사이에 심각한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계속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침략과 간섭책동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있다.

인류의 생존과 발전이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는 현시기 반제자주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은 제국주의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련대련합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반제반미전선에 더 많은 력량이 굳게 결속될수록 제국주의의 멸망은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반제자주와 련대를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연구보급하고 적극 구현하는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미증유의 전인력으로 자주위업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을 무단히 확대해나가야 한다.

보고자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따라 전진하는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하면서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굳게 단결하여 침략과 전쟁이 없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대한 문헌이다》, 《주체사상의 빛나는 봉화는 자주, 자립을 위한 투쟁의 등대》,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위대한 사상》, 《조선은 인민의 안녕과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가장 리상적인 나라》, 《선군정치는 지구상의 비범한 정치》, 《나라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제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자》, 《나라의 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주체사상》, 《우리는 언제나 반제자주적원칙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연구소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이다》 등의 제목으로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련대련합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다그쳐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지배와 예속, 침략과 내정간섭이 없는 세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존중되고 평등이 실현된 세계를 바라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나라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굳게 뭉쳐 인민들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반대하여 전절히 투쟁하며 지지와 련대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세계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였지만 지난 수십년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제투쟁의 기수로, 튼튼한 보루로 다져졌다고 말하였다.

조선은 선군정치로 혁명의 전취물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민들의 행복과 권리를 옹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선군정치는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백전백승의 정치,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가장 혁명적인 정치방식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강조하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으나 미국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포기는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이 주체조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말하였다.

오늘 세계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적대세력들의 틈입없는 도전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조선인민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고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독창적인 선군사상으로 개척된 조선혁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것은 자기의 숭고한 위업을 위해 싸우는 나라와 인민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희망의 등대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탁월한 수령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사상으로 하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인민이 어머니당이라고 칭송하며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있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자주적인 새 사회건설의 앞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도록 주체사상에 대한 보급사업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자주와 정의, 진리와 진보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조직에 묶어세우고 핵심대렬을 확대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을 마치면서 그들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등의 구호들을 힘차게 불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전세계주체사상신봉자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성대히 진행된 토론회는 반제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한 력사적회합으로 되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8일 주조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유엔인구기금대표부 성원들과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수행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후손만대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등의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이에 앞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주조 유엔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8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령마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있는데 질겁한 오바마행정부가 저들의 구태의연한 대조선정책을 합리화하고 제재압박분위기를 고취해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다.

최근 동아시아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라오스를 행각중인 오바마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의 계속되는 탄도로케트발사들은 《도발적》이라느니, 혀 및 탄도로케트계획은 지역의 동반자국가들과 미국에 《위협》으로 된다느니, 《도발》은 더욱 큰 압력을 초래할것이며 대조선제재가 보다 효과적인것으로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느니 하고 악담하였다.

오바마의 이번 망발은 미국내외에서 높아가고있는 저들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고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우리가 수차에 걸쳐 선언한바와 같이 우리의 현이은 핵무력강화조치는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중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이 우리의 눈앞에 숱한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들을 강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항시적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우리 나라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뿐이다.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그 어떤 굴욕적인 청탁이나 타협적인 회담판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늘의 엄혹한 현실은 자기 운명은 오직 자기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이 적대세력들을 규합하여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정세제재와 모략적인 《인권》소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대화와 협상에 대해 떠드는것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경거망동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뿐이며 미국이 우리의 섬멸적인 타격을 피할수 있는 최상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것이다.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감히 위협하려드는 미국의 악랄한 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우리는 핵공격능력을 배가로 강화하기 위한 사변적인 조치들을 다계단으로 취해나갈것이다.

주체105(2016)년 9월 8일
평 양

# 주체사상연구 우간다 전국위원회 위원장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마얌발라 로렌스 주체사상연구 우간다전국위원회 위원장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 도착

이노끼 간지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과 일행이 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마철수 조일우호친선협회 서기장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가 8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무도회 진행

무도회장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따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충정을 바쳐가는 긍지와 자랑을 안고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는 녀성들의 기쁨으로 설레이고있었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의 선률이 울려퍼지자 무도회가 시작되였다.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끝까지 새 기발 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는 노래가 무도회장을 진감하는 속에 진정한 인민의 나라, 새 조선의 탄생을 경축하던 그날의 감격과 환희가 무도회장에 차넘쳤다.

그들은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이 땅우에 선군으로 위용떨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여 람홍색공화국기를 세계의 창공높이 휘날려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당을 따라 별처럼 나도 살리》, 《휘날려라 공화국기 우리 삼색기》의 노래에 맞추어 아름다운 꽃물결, 춤물결을 일으켜나갔다.

우리 녀성들을 혁명의 한복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내세워주신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나라의 꽃, 시대의 꽃으로 값높은 삶을 누리는 녀성들의 긍지를 더해주며 련이어 울리는 《황금산타령》, 《응해야》 등의 노래들은 무도회장을 더욱 흥성이게 하였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승리는 대를 이어》의 노래선률에 따라 손벽장단을 치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사랑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며 보람찬 삶을 빛내여가는 랑만과 희열이 한껏 어려있었다.

온 나라 인민이 운명과 미래를 다 맡기고 따르는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을 긍지높이 구가한 《인민의 환희》의 노래가 울려퍼지자 무도회분위기는 절정을 이루었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노래로 끝난 경축무도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공화국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해나갈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혁명적열의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가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가 8일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단장들과 대표들을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 공화국정부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하여 연회마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공화국정부에서는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을 위하여 8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하리쉬 굽따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일행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 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동지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남포항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7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남포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중국 대북선박 《장흥1》호와 월남국적선박 《안빈푸 08》호의 선장, 선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이 세계에 빛을 뿌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자주적인 국가로 존엄과 위용을 떨칠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를 높이 모신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박준영학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프랑스 AFP통신사 사장일행 귀국

에마뉘엘 오그 프랑스 AFP통신사 사장과 일행이 8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림호룡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 전송하였다.

사장일행의 체류기간 조선중앙통신사와 프랑스 AFP통신사사이의 합의에 따라 AFP통신사 평양대리지국개설과 관련한 행사가 있었다.

김창광 조선중앙통신사 사장, 관계일군들과 에마뉘엘 오그 프랑스 AFP통신사 사장일행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양현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8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꾸바대사관 성원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참관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원간에 즈음하여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레 쏘를롱고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발전로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인견천직장, 직포종합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딛리며 전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 공장로동계급의 투쟁모습은 손님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참관을 마치고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손님들은 또한 선군총대의 고향 정천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으며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궁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관람하였다.

# 주조 무관단 김일성정치대학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김일성정치대학을 참관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먼저 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그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혁명사적관, 체육관, 전자도서관을 비롯한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손님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바호람 간바리 첼라라씨 이란이슬람공화국대사관 무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건강하실것과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기를 축원한다고 썼다.

알렉쎄이 바르뚜쏘브 로씨야련방대사관 무관은 굳건한 사상적기초가 없는 군대는 그 어떤 성과도 이룩할수 없다, 재능있는 군사정치일군들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손님들은 또한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중등교육환경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중등학원을 참관하였다.

#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참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돐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8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먼저 조사공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상을 형상한 보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온정속에 공장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과 공장의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영웅청년대군이 자라난다

##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을 보고

불패의 청년대강국의 위용과 기상이 온 천하를 뒤흔들고 태양의 축복받은 500만 청년들의 삶이 영광의 최절정에서 빛나는 속에 또 하나의 청춘송가가 태여나 시대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우리 시대 청년핵심, 영웅청년들의 대부대로 성장한 백두청춘들의 값높은 생을 격조높이 구가한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

이 작품이 안고있는 사상적무게와 예술적감화력을 우리는 긴말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당을 옹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조선청년들의 모습처럼 어려오는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제를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이 우리 당력사의 원고를 자기 피와 땀으로 썼습니다.》**

이 불멸의 명제야말로 청춘의 자서전에 대한 가장 생동한 표상이고 이 나라 500만 영웅청년들의 삶에 대한 값높은 표창이다.

조선청년들의 자서전은 결코 범상한 인간의 젊은 시절의 기록이 아니고 종이우에 잉크로 씌여지는 글발도 아니다.

당을 받드는 일편단심의 피와 땀으로 쓴 조선청년들의 자서전은 곧 영웅의 자서전이고 500만 영웅청년들의 자서전이 합쳐져 위대한 조선로동당 력사의 원고를 이룬다는 불변의 철리를 력사의 벽에 진하게 새기며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은 지금 현실 성황리에 공연되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맞으며 만수대예술단과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을 비롯한 관록있는 예술창조집단에 의하여 창작완성된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청년들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누구나 작품을 보고나서 《위대한 청년강국의 실체를 보았다.》, 《지구를 뒤흔드는것만 같은 강한 충격을 받아안았다.》, 《청년대군의 무궁무진한 힘과 우렁찬 발걸음이 온 나라를 진감하는 격동의 순간이였다.》, 《청년들과 인민들이 본받아야 할 투쟁의 교과서이다.》라고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격찬하고있다.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이 그토록 사람들의 심금을 틀어잡고 있는것은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혁명의 근본을 배우며 억세게 성장한 영웅청년들의 값높은 정신세계가 시대의 물길마냥 세차게 굽이치기때문이다.

마치 항일의 투사들이 낮설은 이역에서 황야의 티끌로 사라지면서도 《미래를 사랑하라!》고 웨치던 신념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것만 같고 리수복영웅이 피로 쓴 자서전과도 같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가 증폭되여 가슴에 와닿는것만 같아 관중들은 이름할수 없는 격정으로 심장을 뛴다.

그들과 함께 공연을 보는 우리도 참으로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무미두려운 위재수첩을 펼쳐들고 발이 닳도록 백두전구를 달리며 눈물속에 만나보았던 그 수많은 백두청춘들의 모습을 글에 다 담지 못한 안타까움이 늘 마음한구석에 남아있던 우리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연이 진행되는 바로 그 1시간 15분동안에 인민이 알고싶어하고 조국이 떠받들어주고싶어하는 백두전구의 영웅청년들을 한꺼번에 다 만나보고 그들의 피땀이 스민 격전장들을 날날이 밟아보는것만 같은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였다.

청춘!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누구에게나 한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시절, 둘도 없는 이 시절에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영웅이 되고 애국자가 되려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한결같은 지향에 불을 달아주는것으로 하여 백두청춘들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그토록 크나큰 전인력을 발휘하는것이다.

청춘의 자서전의 첫장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위대한 청년강국의 장엄한 출정식인듯 백두전구에 펼쳐진 해뿌라다. 그 불과 함께 자서전의 첫 페지가 펼쳐진다. 분명 귀로 듣고 눈으로 본것은 주인공의 독백과 음악, 무용이였지만 심장에 와닿은것은 지구를 깨치는 백두의 드세찬 불뢰성이고 번개였다. 천하를 드르릉 울리는 장쾌한 음악이 흐르는 속에 천군만마의 호응소리마냥 요란히 터쳐지는 노래폭탄, 모닥불, 우등불을 형상한 무용수들이 무대우에 불의 격랑을 일으키는 속에 서장합창과 무용 《라오르라 우등불아》는 수소탄의 폭음과도 같은 장쾌한 격정을 활화산처럼 련속 분출시킨다.

쌩쌩— 지축을 흔드는 그 뢰성은 과연 무엇을 시사하는것인가. 태태치는 저 백두의 우등불과 더불어 과연 이제 무대로는 어떤 생활이 흐를것인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인 주인공의 독백이 무대에 울린다.

《준엄한 항일의 피어린 자욱이 어려있는 백두산은 처음부터 우리를 무심히 받아주지 않았다. …》

이렇게 10여년전 중학교를 졸업하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 들려대배낭을 풀어놓았던 주인공, 백두대지에 뿌리내린 어리고 연약한 나무모와도 같았던 주인공을 비롯한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이 무대우에 펼쳐진다.

이러했던 돌격대원들이 공연의 마감에는 마침내 어떤 모습으로 관중들앞에 서는가.

다름아닌 세계를 놀래운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체현자들이 되여 나선다.

작품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조선청년들의 혁명적성장에서 어떤 거대한 사상정신적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며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성장한 영웅청년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를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밝혀내고있다.

우리 청년들에게 삶의 어머니, 위훈의 고향이 있다면 그것은 백두산이며 성장의 자양분이 있다면 그것은 백두의 칼바람이다.

젖을 물려주고 육친의 정을 부어주어서만 어머니가 아니다. 당과 수령, 조국을 알게 하는 혁명의 량식을 주고 신념을 벼려주는 백두산이야말로 이 나라 청춘들의 어머니, 신념의 용광로이다. 하기에 누구나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면 강철의 투사가 되고 창조의 거인으로 자라게 되는것이다.

무용 《서두수의 얼음을 헤치며》는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백절불굴의 신념의 투사들로 성장하는 조선청년들의 불굴의 모습을 조형예술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삽시에 두터운 얼음장으로 변하는 무대, 령하 30℃를 오르내리는 백두의 혹한, 혈속까지 얼어드는듯 한 격전터에 청춘들이 용감히 뛰여들어 얼음장을 팡팡 무신다.

보통인간들은 열백번도 주저앉았을 신념과 의지의 전장인 백두전구에서 청춘의 불타는 심장으로 시련의 얼음장벽을 뚫고나가는 불굴의 군상을 보며 관중들은 백두의 칼바람정신, 당중앙결사옹위의 신념을 지닌 인간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힘을 발휘하는가를 눈물겹도록 체험하게 된다.

또 하나의 형상이 큰 충격을 안겨준다.

《두다리가 아니라 온몸이 부스러진대도 백두산만은 내리지 않을테요! 죽어도 못 내려!》라고 불같이 웨치는 돌격대원, 그의 형상이 결코 예술적허구였던가. 아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살아있는 목소리였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두다리를 잃고도 나에게는 아직 두팔이 있다고 웨치며 착암기부터 찾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의 목소리를 무대에서 듣게 되는 관중들의 감흥은 참으로 크다.

그런가 하면 시련의 폭풍이 앞을 가로막아도 당과 수령을 따르는 한길에서 추호도 물러서지 않을 백두청춘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그대로 대변하고있는 무용 《백두의 넋》은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들려주는 백두산칼바람이야기와도 같다.

이렇게 무대우의 인물들과 함께 항일의 빨찌산도 되여보고 백두대지에 서서 얼음장도 함께 씹어보고 서두수의 얼음장도 함께 깨치면서 관중들은 백두의 칼바람을 사랑하며 력사의 창조자, 위훈의 주인공이 되고 칼바람과 멀어지면 시대의 락오자가 된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게 된다.

인간을 가장 강하게 하는것은 무엇인가.

신념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언제나 당과 혁명앞에 떳떳한 삶을 살게 하는 신념, 혁명가의 심장과도 같은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을 벼려주는 가장 리상적인 학교, 투쟁의 용광로가 바로 백두산이라는 생각에 관중들은 저도모르게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는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투쟁을 하나로 쥐여짜면 피땀이라는 두글자가 나오고 그것을 쥐여짜면 신념이란 두글자가 나온다.

신념의 용광로에서 끓는 피와 땀은 식지 않는다!

바로 그 신념의 용출인 피와 땀으로 새긴 청춘의 자서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음악무용이야기는 조선청년들의 인생관의 근본핵으로 되는 신념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백두산이 안겨준 신념의 민족리, 기적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명하는데로 형상의 초점을 집중하고있다.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청년명장들로 억세게 키운것이 백두의 신념이라면 그 신념의 버림목이 되여준것은 어버이장군님과 우리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였다.

청춘의 자서전이자 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일지, 믿음의 일지였다.

나는 청년들을 믿고 청년들은 나를 믿고!

이런 불같은 호소를 터치시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백두산속시범을 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하늘같은 믿음이 그대로 청년들의 신념의 초석이 되고 위훈의 기발이 되였음을 작품은 음악과 무용, 독백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생동하게 증명해보이고있다.

백두산을 교단으로 정하시고 청춘들을 그 어떤 폭풍에도 굴힐줄 모르는 신념의 억센 이깔들로 키워주신분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솜옷이며 장갑, 목도리, 물고기도 한가득 안겨주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심을 무대우에 펼쳐지는 전광화면들이 뜨겁게 전하고있다.

그 사랑, 그 믿음에 온넋이 끌리고 심장을 통채로 맡기는 청춘의 그리움, 충정의 열기가 그대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으로 이어지고 우리 청년들은 그 이름도 자랑스러운 영웅청년들로 성장할수 있은것이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언제완공의 력사적순간들을 반영한 무용 《단숨에》는 이에 대한 가장 뚜렷한 예술적해답으로 된다.

기승전결의 흐름을 타고 청년들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며 마침내 무대에 승리의 기념탑마냥 높이 솟아 빛나는 백두청춘언제!

이는 결코 철근과 콩크리트의 결합체만이 아니다.

당의 위업을 피와 땀으로 충직하게 받든 청춘들의 피끓는 심장의 성새이고 오직 당이 정한 길로따라 곧바로 한길만을 달려온 신념의 고귀한 투적이다.

이런 사상정서적감정을 총폭발시키며 무대의 전광화면에는 언제완공을 경축하여 터뜨리는 축포의 불보라가 아름답게 빛나고 작품은 종장 혼성2중창과 합창 《력원의 청년행진가》로 형상의 최고절정을 장식한다.

그렇다. 우리가 무대에서 보게 되는 청춘의 자서전은 책자의 글발이나 누구에게나 있는 인생의 추억이 아니다. 시대와 인민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청춘의 자서전은 바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같이 조국에 세우는 청춘의 기념비, 우리 당력사에 자랑스럽게 새기는 위훈의 기록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청년들이 우리 당력사의 원고를 자기 피와 땀으로 썼다고 그토록 뜨겁게 말씀하신것이다.

청춘의 자서전이자 우리 당력사의 기록으로 되는 이렇듯 위대한 청년강국의 전성기에 대한 격조높은 찬가로 된다는데 바로 음악무용이야기가 가지는 비상한 사상적무게와 예술적감화력이 있다.

그때서 비록 무대에 펼쳐지는것은 백두청춘들의 불굴의 투쟁이지만 관중들의 눈앞에 어려오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피와 땀이 불붙어 더욱 불어진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기록이고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어머니 우리 당의 눈부신 자태인것이다.

당은 청춘들을 믿음의 철학으로 억세게 키워 청년강국의 영웅청년전기를 빛내여주고 청년들은 자기의 영웅적위훈으로 당력사의 원고를 금지높이 쓰는 당과 청년대군이 위대한 혼연일체를 이룬 정이적인 현실은 세계에 오직 하나 청년강국 조선에만 있다.

위대한 당과 청년대군이 한피줄을 이룬 혼연일체의 힘, 이것이 바로 청년강국의 위력이고 존엄높은 주체조선의 강대성임을 작품은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주체적문학예술의 보물고에서 음악무용이야기는 자기의 독특한 지위와 생명력을 가지고있다.

이야기와 극, 음악과 무용을 조화롭게 결합시킨 종합적인 무대예술의 한 형태인 음악무용이야기는 한 나라, 한 민족의 예술과 문명, 문화발전수준을 가늠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음악과 무용으로 보는 시대를, 인간생활의 모습을 생활그대로의 형식으로 아름답게 반영하는 무대우의 인간학으로 불리우고있다.

인류예술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예술형태인 음악무용이야기가 우리 인민들에게 첫선을 보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발전의 전성기가 펼쳐지던 지난 세기 70년대였다.

《락원의 노래》라는 제명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음악무용이야기형식이 새 세기에 와서 백두청춘들의 모습을 담아 청년강국의 불패의 위용을 과시하는 자랑찬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주체적가극예술의 보물고가 가지는 영원한 생명력과 비상한 감화력을 뚜렷이 증시하고있다.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이 몇십권의 장편소설에 담아도 다 전하지 못할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10여년의 간고하고 눈물겨운 투쟁사를 짧은 시간동안에 집약화, 전형화하여 유감없이 보여줄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르익혀주신 음악무용이야기형상창조의 원칙과 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투쟁가운데서 본질적이고 필연적인 세부들을 찾아내여 형상의 큰 덩어리들을 만든것이라든가, 자서전형식의 독백을 인입한것, 청년들 특유의 랑만과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줄수 있는 대표적인 명곡들과 무용장면들을 조화롭게 결합시켜 작품의 극성과 사상적내용의 깊이를 보장한것은 그 뚜렷한 실례이다.

특히 창조집단의 새로운 시도라고 볼수 있는것은 지난 시기의 음악무용이야기에서는 볼수 없었던 노래와 모래그림과 같은 형상수법들을 대담하게 도입한것이다.

노래와 모래그림 《불타는 삶을 우린 사랑해》, 《너와 나는 동지》, 《황금을 뿌리여도 청춘은 못사》, 《보란듯이》에 나오는 모래그림들은 백두청춘들의 정신세계를 영화화면이 흘러가듯이 노래와 함께 련속 보여줌으로써 내용과 형상의 함축성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하였다.

하기에 이 장면을 보면서 관중들은 우리 원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백두청춘들이 그린 소묘작품집의 한페지한페지를 펼쳐보는듯 한 류다른 감흥에 휩싸이게 되는것이다. 얼마나 형상이 진실한지 우리가 취재길에서 만나보았던 로력영웅인 박정금동무가 소중히 들고있던 흙주머니며 세쌍둥이혁신자의 일기장을 마주한것만 같았다.

무대미술에서도 3D합성기술과 영화적인 편집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시공간의 제한이 거의 없이 사계절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주면서 무대환경을 주인공을 비롯한 돌격대원들의 성장발전과정을 따라 부단히 변화시켰으며 백두의 산악미와 백두의 정기, 백두의 숨결이 무대전반에 뜨겁게 굽이치게 하였다.

아무리 훌륭한 소재도 어떤 종류의 예술형식에 담는가에 따라 빛이 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이번에 창조집단에서는 수많은 문학예술의 종류가운데서도 음악무용이야기형식에 청춘들의 생활과 투쟁을 담음으로써 노래도 많고 춤도 많은 혁명적이며 랑만적인 우리 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이 시종일관 힘있는 리듬과 박력, 격동속에 흘러가도록 하였다.

지구상에 청년들은 많지만 우리 청년들의 생활과 투쟁처럼 혁명적이며 건전한 음악과 아름다운 률동과 그처럼 잘 어울리고 또 그들자신의 모습이 음악으로, 춤가락으로 되는 현실은 찾아볼래야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높이 울리는 또 하나의 청춘송가인 음악무용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은 앞으로도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에 참다운 혁명관, 인생관을 심어주는 교과서로 더욱 빛을 뿌리면서 500만 청년전위들을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의 체현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키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위대한 당이 있고 조선로동당에 끝없이 충직한 영웅청년대군이 있는한 사회주의강국건설사를 빛내이는 청춘의 자서전은 계속될것이며 시대와 인민이 부르는 청춘송가는 주체예술의 무대우에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박 옥 경, 리 수 정

존엄높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빛내여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만수대언덕에서— 김 광 림 찍음

#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 훌륭히 개건, 준공식 진행

【강계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이 온 나라에 더욱 아름답게 펼쳐지는 속에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이 훌륭히 개건되여 준공하였다.

뭉치수려한 장자강반에 어울리게 특색있게 개건된 궁전에는 수학, 정보기술, 자동차, 미술, 무용, 가야금, 피아노소조실 등 30여개의 소조실과 예술공연도 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체육관을 비롯하여 청소년학생들의 과외교양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져있다.

준공식이 8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리형근 자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송종하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궁전교직원들, 강계시안의 학생소년들, 근로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는 김재룡 자강도당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은 학생소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사랑을 다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당의 은정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사랑의 궁전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3(1964)년 5월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학생소년궁전을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건설이 완공된 다음에는 몸소 《배움의 천리길학생소년궁전》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수많은 교육설비들과 악기, 통전기재들을 보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궁전에숲소조원들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수십차례에 걸쳐 교육설비들도 마련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며 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 근로자들이 학생소년들의 과외교양기지를 훌륭히 일떠세울 일념안고 궁전개건공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자강도청년돌격대원들이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낡은 건물을 완전히 들어내고 얼어붙은 땅과 암반을 까내면서 1만 5 000여㎥의 토량을 처리하여 기초굴착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북방의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공사를 중단없이 내밀었다고 말하였다.

차가정세멘트공장을 비롯한 련관단위 공장, 기업소들에서 궁전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였으며 도급기관들과 강계시를 비롯한 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사를 물심량면으로 지원하여 완공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한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의도를 언제나 앞장에서 받들어온 인민군군인들이 건설장에 달려나와 제일 어려운 공사과제를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단숨에 해제낌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높이 떨치였다고 말하였다.

학생소년궁전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어려있는 건물들과 설비, 비품들을 언제나 알뜰히 관리하고 과외교양사업을 짜고들어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울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소년단야영소, 소년회관, 학교, 유치원 등에 보다 훌륭한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후대들을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믿음직하게 키우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궁전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 유훈관철투쟁에서 발휘된 훌륭한 기풍

## 수동구에서

어디서나 양어열풍이 세차게 몰아치는 속에 함경남도 수동구에서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양어장을 새롭게 변모시켰다.

이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온 수동구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지난해 가을 몇년전의 큰물피해로 하여 폐허나 다름없이 된 양어장을 돌아보는 구당책임일군의 생각은 깊었다.

무너져내린 돌담들과 감탕이 쌓여있는 못들, 언제 손길이 갔는지 알수 없는 생산건물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동구에서는 샘물이 많은 조건에서 칠색송어를 대대적으로 길러 탄부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석탄생산에만 치우치면서 우리 수령님의 이 유훈관철사업을 일관성있게 내밀지 못한 자책으로 당책임일군의 어깨는 무거웠다.

다음날 구당위원회 책임일군의 방에서는 양어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긴급협의회가 열리였다. 진지한 토론끝에 먼저 본보기로 될수 있는 양어못과 생산건물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지체없이 구당위원회 부부장 신재훈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30여명의 돌격대가 공사장으로 떠났다. 구당책임일군은 공사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중기계들도 동원하였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랐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성토하여 닦은 양어장도로로는 중기계들이 들어갈수 없었던것이다. 도로를 닦는데 얼마만한 기일이 걸릴지 모르는 속에서 지난 시기 천성리의 소재지를 비롯하여 구안의 령도업적단위들을 꾸리는데서 선봉적역할을 해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지체없이 전투에 진입하였다.

알깨우기실, 종합조종실을 비롯한 여러 방들로 된 연건평이 400여㎡나 되는 2층으로 된 종합청사와 사료창고, 사료조리실, 수천㎡의 양어못건설을 비롯하여 전투목표는 실로 방대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불로크쩍기와 동시에 종합청사기초굴착작업에 진입하였다.

샘원천이 많은 지대여서 1m정도 들어가니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물은 사람의 키를 넘었다.

돌격대원들은 한쪽으로 바께쯔와 소량이를 총동원하여 물을 퍼올리면서 굴착전투를 계속해나갔다. 하지만 작업실적은 시원치 못했다.

이때 돌격대원들속에서 기발한 착상이 나왔다. 기초구간안에 가물막이식으로 축을 쌓고 한구간씩 해제끼자는것이였다. 모두가 성수가 나 일손을 다그치는 속에 작업속도가 높아지고 실적도 나날이 올랐다.

하지만 기초굴착공사를 끝낸 그들에게는 더 어려운 난관이 앞을 막아나섰다. 한겨울에 공사를 진행해야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수령의 유훈관철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있어서 불가능이란 있을수가 없었다. 그들은 천막과 비닐막막을 겹겹이 치고 불을 피우며 한구간한구간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해나갔다.

추운 겨울날씨로 하여 콩조콩크리트가 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밤에는 자기들이 덮는 이불까지 씌우면서 중단없이 공사를 밀려나갔다.

이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단두달만에 종합청사가 일떠서고 수천㎡의 양어못들이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너무도 짧은 기간에 안아온 희한한 전변이여서 구의 많은 일군들과 주민들이 이곳에 와보고는 전문건설력량도 아닌 우리 구의 돌격대원들이 한 일이 맞긴 맞는가고 하면서 그들의 보배손을 어루쓸며 눈물을 흘리였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건설전투의 나날 수시로 현장에 나와 가정에서 마련한 지원물자도 안겨주며 힘과 용기를 백배해주던 구당위원회의 일군들과 5만여마리의 새끼고기를 받아내면서도 짬시간을 리용하여 천여㎡의 감탕을 퍼내고 양어못의 돌담도 정성담아 쌓아나간 손광수동무를 비롯한 구직동양어사업소 종업원들의 애국헌신의 이야기를 다 적을수 없다.

두메산촌에 새롭게 태여난 양어장에서 기른 물고기가 이곳 탄부들의 집집마다에서 웃음꽃을 안아올 때 사람들은 다시금 새기게 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끝까지 관철하는 길이 바로 자신들에게 행복이 마중오는 길이라는것을.

본사기자 리 영 민

# 사랑과 정성으로 이어온 90여일

## 철도성병원 의료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입니다.》**

지난 6월 21일, 철도성병원의 앞마당에 많은 의료일군들에게 에워싸인 한 로동자가 나섰다. 뜨거운 바래움속에 성큼성큼 내짚던 그의 발걸음이 문득 멎었다. 눈굽을 적시며 의료일군들을 다시금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이 세상에 다시 태여난 격정과 환희가 물결치고있었다.

몇달전 철도성병원으로는 작업도중 뜻밖의 일로 심한 화상을 당한 한 로동자가 실려왔다.

이름은 최영일, 나이는 54살, 개천시의 어느 한 공장에서 수십년간을 로동자로 일해온 혁신자였다. 전신 48%의 2~3도 화상이라는 사실도 그랬지만 전반적검진결과에 의하면 소생불가능이였다. 시시각각 마지막게선으로 접근하는 생명지표, 화상성쇼크로 의식이 전혀 없는 환자의 위독한 상태가 병원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의 긴장한 눈빛에 그대로 어려있었다. 화상환자치료에서 많은 림상경험을 가지고있는 병원의 의료일군들이였지만 이렇게 심한 화상환자를 대하기는 처음이였던것이다. 찌져가는 한 생명을 두고 진행된 협의회장의 공기는 매우 팽팽했다.

《물론 환자의 소생담보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우리가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서라도 환자를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교조의 전군집에 나선 우리 보건일군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초급당일군의 호소에 이어 병원집단의 기대와 믿음속에 과장 최광일동무를 책임자로, 허철민동무를 담당의사로, 송효심동무를 담당간호원으로 하는 치료전투조가 조직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세워졌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시간이 흘렀다. 현대의학이 이미 죽음을 선언한 환자를 두고 진행한 전투였기에 그 긴장성과 열도는 상상을 초월하였다. 매식을 먼지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일군들의 정성은 참으로 눈물겨운것이였다.

지금 환자에게 절실히 필요한것은 효능이 큰 치료약이나 높은 의술보다 그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는 우리의 정성이다.

이런 생각이 의료일군들의 가슴마다에 용솟음쳤기에 그들은 기존상식이나 경험을 따지기 전에 참된 의료일군의 량심,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보건일군으로서의 본분과 도리에 대해 먼저 생각했다. 긴장한 치료전투의 나날 친혈육의 마음으로 기울인 뜨거운 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병원당조직이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원장, 기술부원장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자신들의 림상실력을 총발동해 치료전술과 대책을 세워가며 환자의 걸음 떠날줄 몰랐다. 정성이 명약이 되여 드디여 환자는 3일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다음전투는 피부이식수술이였다. 1차피부이식수술은 조용히 진행되였다. 원장, 기술부원장, 초급당위원장을 비롯한 병원일군들이 먼저 수술대우에 올랐다. 마지막에는 외과 과장을 비롯한 수술조성원들이 지마다 피부를 떼내여 이식하였다. 하지만 2차수술때는 수술날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사, 간호원들을 비롯한 병원의 종업원들이 모두 떨쳐나 수술장으로 달려왔다. 서로 싱갱이질을 하며 자기의 피부를 먼저 떼겠다고 양보를 모르는 사람들…

그 수는 무려 140여명을 헤아렸다. 흔연히 웃으며 수술장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료일군들과 가족들의 얼굴에서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였다. 환자는 이렇게 위기에서 벗어났다. 환자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의료일군들은 환자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킬 때까지 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한 로동자를 위해 바쳐진 90여일은 대교조로 불붙는 오늘의 벅찬 시대에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바지해가는 우리 보건일군들의 불같은 열정으로 이어진 날과 달이였다.

철도성병원 사지외과의 의사, 간호원들뿐아니라 집중치료에서 제기되는 약물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보장한 과장 신정순동무, 귀중한 보약을 마련하여가지고 환자에게 달려온 김영심동무,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매일이다싶이 식사시간에 맞추어 지성어린 음식들을 가지고 호실에 들어서던 룡남산체육단 선수인 리성동무를 비롯하여 한 로동자를 위해 사랑과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온 모습들은 오늘도 아름다운 우리 사회의 참모습으로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성 민

#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자

##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 남측, 해외본부 공동결의문

미제침략군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신성한 우리 조국 남녘땅에 기어든 때로부터 장장 71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전조선반도를 통채로 집어삼켜 아시아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흉악한 목적밑에 감행된 불법무도한 날강도적인 침략행위이다.

전범국도 전패국도 아닌 우리 나라가 40여년간에 걸친 강도 일제의 식민지억압통치에 이어 또다시 미국양키들의 더러운 침략의 군화발에 짓밟혀 세기와 년대를 넘어오며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고 있는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미제의 불법적인 남조선강점으로 하여 반만년의 오랜 기간 한피줄을 잇고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반세기이상 둘로 갈라져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으며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이 엄중히 침해당하고있다.

이 가증스러운 침략의 무리들이 오늘은 우리 민족과 조국강토에 핵참화까지 들씌우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우리 겨레의 강렬한 통일열망에 역행하여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서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쟁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전쟁위기를 격화시키고있으며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 《싸드》를 끝끝내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을 핵전쟁대결장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한 언제가도 이 땅에는 평화가 깃들수 없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이루어질수 없으며 핵전쟁위기를 몰아낼수 없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남측본부, 해외본부는 민족분렬의 원흉이고 통일의 최대장애물이며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나라의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드높은 의지를 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범민련은 삼천리조국강토에서 하루빨리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것이다.**

미국이 우리 민족을 우롱하고 침략과 략탈, 강권과 전횡을 일삼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민족자주, 반전평화의 성전에 떨쳐나선 온 겨레의 도도한 기상앞에 날로 비참해지고있는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의 추악한 몰골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반미항전에 떨쳐나설 때 미군은 신성한 조국강토에서 쫓겨나게 될것이며 우리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것이다.

범민련은 미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대학살만행과 만인분격범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이 땅에서 감행한 침략과 전쟁의 피묻은 죄악의 력사를 고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다.

미국과의 불공평하고 굴욕적인 모든 《조약》과 《협정》을 배격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앞장에서 선도해나갈것이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2. 범민련은 내외반통일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나갈것이다.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미군장갑차를 한몸으로 막아나선 범민련의 희생적인 투쟁은 오늘도 온 겨레를 반미, 반전평화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범민련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과 핵전쟁장비의 반입을 비롯한 무력증강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반도를 핵강들의 힘의 대결장,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미국의 강압적인 《싸드》배치를 단호히 저지시키며 이를 반대하는 각 정당, 단체, 인사들과의 련대활동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우리 조국 남녘땅에 도사리고있는 가증스러운 미군기지들과 전쟁장비들을 모두 철거시키고 각종 생화학무기의 반입과 실험으로 겨레의 삶의 터전을 황폐화시킨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날뛰는 반통일보수세력의 극악한 친미사대와 전쟁도발책동을 단죄규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3. 범민련은 온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은 이 땅에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무기이며 자주통일운동의 원동력이다.

지금처럼 북남사이의 반목과 질시, 불신과 대결이 심화된다면 북남관계는 더욱더 악화되고 전쟁기운은 날로 높아가게 될것이며 이것은 침략적인 미국에 간섭과 전횡의 구실만을 주게 될것이다.

범민련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해결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단합하면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지고 해내외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련대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나갈것이다.

력사적인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불변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하루빨리 개최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것이다.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에 끼여들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면서 저들의 불순한 침략적목적을 이루어보려는 미국의 교활한 분렬리간책동에 더욱 각성을 높이고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범민련은 해내외의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2016년 9월 8일

# 진정한 인민사랑의 화원을 그리며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9월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조국찬가》의 선률과 함께 힘차게 나붓기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우러르며 부강조국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인간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진정한 조국을 일떠세워주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으로 가슴끓이고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해방을 이룩하시고 세우신 공화국은 만민이 동경하며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는 민중의 지상락원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김일성주석님의 좌우명은 이민위천이였고 그분의 정치철학은 민귀백승이였다. 공화국이 지닌 높은 영예와 존엄, 이북인민이 누리는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 이 모든것은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을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들에게 존엄높은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인민사랑의 력사를 끊임없이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남녘동포들의 경모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광주에 사는 한 로동자는 어느 한 잡지에 투고한 글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뜻을 받들어 생전에 민중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펴시였다.》고 하면서 그분께서는 모든것을 민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시고 민중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그분의 정치는 근로민중에게 봄을 주고 그늘없이 따사로운 해빛을 준 위대한 사랑의 정치였다, 민중속에 계시며 그들을 위해 로고를 바치는것을 락으로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민중의 친어버이이시였다고 진정을 터쳤다.

인천의 한 주민도 법을 만들어도, 사회적시책을 펴도 근로인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들을 우선시하는 시책을 펴도록 하신 김정일장군님은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이 격찬하고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은 우리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빛내이시면서 인민사랑의 숭고한 력사를 수놓으신 절세의 위인들이시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천의 국가건설리념의 빛나는 결실이다.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국호와 군대의 이름도,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명칭도 인민이라는 무릎과 함께 불리우며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를 비롯한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하기에 남녘인민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빛나고 인민대중의 참된 삶이 꽃펴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인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를 변함없이 펼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서울의 한 주민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세계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분께서 다녀가신 곳곳마다에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이 현실로 꽃펴나고있으며 인민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국가활동에서 항상 인민을 강조하고 민생향상을 위한 내부과제들에 모든것을 집중시키는것이 주목된다.》, 《선대수령들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이어받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있다.》 등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불패의 조국,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가장 우월한 일심단결의 나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은 영원토록 무궁번영할것이다.

엄수련

#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책동을 준렬히 단죄한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싸드》배치책동을 규탄하여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지금 동북아시아나라들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이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강행하려고 발광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이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하는것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철저히 저들의 대아시아지배와 패권전략에 따라 군사적우세를 차지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년과 《새누리당》패거리들은 《싸드는 북핵위협을 억제할 가장 효과적인 무기이다.》고 청을 돋구며 《싸드》를 신처럼 믿기를 강요하면서 군사적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 불안을 조장하고는 그 심리를 리용하여 《싸드》배치를 강행하려 하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괴뢰패당의 이러한 추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며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추종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참화를 몰아오고 남조선을 세계적인 핵전초기지로 더욱 내맡기는 극악한 친미사대적, 반민족적망동이라고 단죄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책동을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집을 터치기 위한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하며 전결히 배격한다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세계적으로 미제침략군기지들이 전개되여있는 나라와 지역들중에 《싸드》체이다룬아니라 그 포대까지 배치하기로 한것은 남조선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만약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파괴되고 조선반도는 세계적인 열핵전쟁마당으로 될것이다.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앞에 《싸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남조선괴뢰패당은 외세를 등에 업고 주제넘게 놀아대다가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싸드》배치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와 내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국의 핵억제력을 감히 시비하며 《싸드》배치를 강행하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평화적,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이 조선서해 열점수역에서 무모한 군사적도발 련이어 감행

【평양 9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서해 우리측 수역에 대한 괴뢰군부깡패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9월에 들어와 더욱 무모해지고있다.

6일에만 하여도 괴뢰군부깡패들은 11시 18분경 괴뢰해군 2함대소속 페속정을 연평도 서남쪽 아군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4km이상 침범시킨데 이어 무려 5차례나 신성한 우리 수역을 침범시키는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우리 군대가 적페속정들이 침범한것과 관련하여 《즉시 퇴함하라.》고 수차에 걸쳐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괴뢰군부깡패들은 제놈들의 해상침범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우리측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하고있는 우리 어선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강도적궤변을 늘어놓다가 보복대응이 두려웠던지 황급히 달아나는 추태를 보였다.

괴뢰군부깡패들의 이러한 해상도발행위는 결코 스쳐지날 일이 아니다.

사상최대규모의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막을 내리기 바쁘게 괴뢰군부깡패들이 페속정들을 련속 침범시키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계속 몰아넣어보려는 간악한 흉계와 관련되여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끝난 이달초부터 조선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주변 우리측 수역에 대한 침범행위가 급격히 늘어나는것이 그것을 립증해주고있다.

2일과 3일 백령도 북쪽 우리측 수역과 연평도 서남쪽 우리측 수역에 3차례나 페속정들을 침범시킨 괴뢰군부깡패들은 4일과 5일에는 5차에 걸쳐 고의적으로 우리측 수역에 함선들을 밀시키고있다.

조선서해 최대열점수역에서의 군사적침범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하는것으로 우리의 자위적대응을 유발시키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를 《도발자》로 매도하며 제놈들의 북침전쟁광기를 정당화해보려는 괴뢰군부깡패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 수역의 군사적긴장은 최대로 격화되고 있다.

어느 순간에 군사적충돌의 불씨가 튕길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우리 군대는 군사적도발에 기승을 부리는 괴뢰군부깡패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이미 엄숙히 선언한바 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이 이 땅, 이 바다, 이 하늘에서 무사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차례진것은 오직 하나 처참한 개죽음뿐이였다.

제 죽을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것은 우리 군대의 변함없는 대응방식이다.

남조선괴뢰군부깡패들은 극도로 모험적인 군사적도발행위가 기필코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미국의 핵잠수함추가배치책동

2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미해군이 새로 건조한 버지니아급 공격형핵추진잠수함 《일리노이스》호를 다음달에 미태평양함대에 배치할것을 획책하고있다.

미해군은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공격무기들을 갖춘 이 잠수함을 래년부터 작전수행에 나서게 하려 하고있다.

앞으로 《일리노이스》호와 같은 형의 핵추진잠수함을 추가로 5척 인수하며 2019년부터는 이 함선들의 미싸일발사관수와 사거리를 늘이는데 착수할것을 꾀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핵잠수함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며 정세를 험악한 지경에 몰아가고있다.

최근 세계언론들은 미핵잠수함들이 지난해부터 조선동해의 우리 나라 주변 국제해역에서 우리 전략잠수함들에 대한 추적작전을 비밀리에 진행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있지만 조선의 잠수함들을 추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있는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부언하였다.

전략잠수함들의 대결이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는것은 이전 쏘미랭전시기에 확증되였다.

그날의 대결을 동아시아에서 재현해보려고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핵잠수함증강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앞두고 8~9척의 핵잠수함들이 조선반도주변해역에 증강배치된것은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동아시아나라들을 타격권내에 두고있는 핵잠수함들의 움직임이 불피코 이 지역 나라들의 대응조치를 불러와 결국 군비경쟁의 심화로 이어진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세계언론들이 미핵잠수함증강배치와 관련하여 벌써부터 동북아시아지역이 핵잠수함군비경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수 있다고 경고한것은 결코 스쳐지날수 없다.

미국이 핵잠수함따위로 우리를 눌러워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 미군기지오염실태의 공개를 요구

얼마전 남조선의 룡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를 비롯한 단체들이 서울 룡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군기지환경오염실태 조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괴뢰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랑독되였다.

회견문은 지금 당국이 룡산미군기지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그 계획과 방법, 금모에 대해 일언반구 없다고 비난하였다.

룡산미군기지는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들중 오염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라고 회견문은 폭로하였다.

회견문은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꾸준히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지난해 처음으로 기지내부의 지하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였지만 당시 관련정보는 비공개로 되였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도 그 정보가 비공개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공개를 주장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회견문은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은폐하고 이번 조사마저 비밀리에 해야 할 리유는 무엇이며 민중의 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미국과의 동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고 회견문은 반문하였다.

회견문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가시기 위해서는 미군기지내부의 오염실태에 대한 정보와 조사과정을 공개하고 조사에 시민들을 적극 참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싸드》배치반대기운 누잦힐수 없는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다그치고있는 괴뢰집권세력의 망동은 남조선 각계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으며 그것은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으로 계속 이어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패당은 인민들의 《싸드》배치반대투쟁이 날로 고조되자 그 무슨 제3후보지검토니, 확정이니 하면서 민심의 분노를 눅잦히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하지만 괴뢰들의 제3후보지검토놀음은 오히려 각계의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싸드》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로 사실상 확정된 성주골프장과 가까운 김천시 주민들의 항의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엄마전 《싸드》배치반대 김천투쟁위원회소속 인사 10여명은 성주골프장이 《싸드》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로 선택되는것을 반대하여 괴뢰국회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괴뢰당국의 망동으로 김천시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면서 성주골프장에 《싸드》를 배치하는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언명하였다.

한편 김천시 주민들은 괴뢰국방부앞에서 《싸드》배치놀음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삭발식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당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싸드》배치를 강행할 경우 반《정부》투쟁에 총궐기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금 성주와 김천의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은 괴뢰당국의 《싸드》배치놀음을 반대하는 초불시위를 비롯한 각종 투쟁들을 끊임없이 벌려고있다. 그들뿐이 아니다. 제주도와 부산 등 남조선도처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싸드》배치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야당세력들도 《싸드》배치반대기운을 고조시키고있다. 야당들은 《싸드》배치를 위한 당국의 제3후보지선정소동으로 극도의 혼란이 조성되고 갈등이 심화되고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립장을 표시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야당들은 《싸드》배치반대를 당의 공식립장으로 정하고 《싸드》배치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바빠맞은 괴뢰군부우두머리들은 지역주민들의 《리해와 지지를 바란다.》느니 뭐니 하면서 격노한 인민들을 달래기 위해 분주함을 피우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인민들은 《싸드》배치계획의 철회와 괴뢰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투쟁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이러한 속에 얼마전 남조선의 한 야당의원이 미국방성과 미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는것을 폭로하여 각계의 더 큰 항의규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싸드》배치는 남조선을 미국의 전지구적인 미싸일방위체계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경고하였다.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서 남조선을 대국들의 각축전장으로 만들고 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우는 매국반역행위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괴뢰당국의 《싸드》배치소동에 치솟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대중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것이다.

박근혜패당이 그 누구의 《해, 미싸일위협》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라느니, 《자주적결단》이니 하며 《싸드》배치놀음을 정당화하고 제3후보지검토놀음으로 민심을 기만우롱하고있지만 그런 비렬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괴뢰들이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며 《싸드》배치소동에 광분할수록 각계의 반《정부》투쟁은 더욱 고조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호

# 대륙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아프리카나라들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지위가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아프리카동맹의 적극적인 활동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아프리카통일기구의 후신인 아프리카동맹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대륙의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강력한 아프리카를 건설하려는 대륙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할 목적밑에 1999년 9월 9일 리비아에서 진행된 아프리카통일기구 특별수뇌자회의에서 발족되였다.

그후 평화와 친선,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고 대륙의 통합을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2002년 7월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제1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이때부터 아프리카동맹은 정식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아프리카동맹의 창설과 활동은 대륙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책동에 공동의 전략으로 맞서며 대륙의 사회, 정치, 경제적잠재력과 자연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오늘 아프리카동맹은 54개의 성원국을 가진 전대륙적인 기구로, 대륙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권위있는 기구로 장성강화되였다. 현재 아프리카동맹 성원국이 유엔성원국의 4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는 한가지 사실만 봐도 국제무대에서 날로 높아가는 아프리카나라들의 영향력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아프리카동맹은 창설후 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협조, 부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왔다.

지난 7월 르완다의 수도 끼갈리에서는 제27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개막연설에서 르완다대통령은 《우리가 하나로 단합하는 여기에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다. 단합은 구호가 아니다. 단합하는데 아프리카나라들이 살아갈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서 세계의 분렬은 증대되고있지만 아프리카나라들에는 하나의 원칙으로 단합할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고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사증발급이 없이 성원국들을 자유래왕할수 있는 아프리카단일려권을 시급히 사용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으며 여기에 참가한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이에 일치한 찬동을 표시하였다.

지금 아프리카나라들은 2017년까지 대륙적인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것을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 자유무역지대는 망라된 나라수에 있어서 제일 큰 자유무역지대로 될것이라고 한다.

대륙의 정치경제적통합을 실현함으로써 부흥하는 아프리카를 건설하려는 대륙나라들의 투쟁은 좋은 결실을 맺을것이다.

본사기자 림권

# 물을 살균소독하는 장치 개발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태양에네르기를 리용하여 물을 살균소독하는 우표절반만한 크기의 나노구조장치를 개발하였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장치의 겉면은 마치 지문처럼 좋은 간격으로 많은 선들이 배렬되여있다.

이 선들은 아주 얇은 막으로서 장치겉면에 씌운 이류화몰리브덴의 나노박편이다. 이류화몰리브덴은 값이 눅고 만들기 쉬워 공업용윤활제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새로 개발한 장치를 물속에 잠그고 해빛에 쪼이면 과산화수소와 기타 살균화학물질이 생성되여 단 20분동안에 거의 모든 세균을 죽인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611458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